



정읍시 초산동, 신임통장단에 임명장 수여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는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통장회의를 열고 신임통장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통장은 총 28명으로 통장협의회장에는 김정호 씨가 선출됐다. 통장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앞으로 4년간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며 마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김정호 협의회장은 "행정과 최일선에서 통장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임 경찰관 환영식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가 8일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고창경찰'로 선발된 교통관리계 강하영 행정서기와 상송과출소 김태훈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313기 신임경찰관에 대한 전임 환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313기 순경 유서준, 순경 이선아(모양지구대), 순경 손유민(해리파출소)에게 환영과 부임을 축하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자랑스러운 고창경찰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감사하다. 신임경찰관은 경찰의 기본업무에 열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고창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8일 서장, 각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명지홍예 대한 전임신고 및 환영식을 가졌다. 남기재 서장은 "313기 신임 경찰관의 무주서 발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최성호 교수, 연구 우수성 인정

비파괴검사 연구 한국정밀공학회사 '최대 인용 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최성호 교수(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원)가 금속 3D 프린팅 제품의 내부결함 및 품질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초음파 비파괴검사 기술을 개발, 최근 한국정밀공학회가 수여하는 최대 인용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교수는 SCI(E)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Green Technology'에 '딥러닝 기반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이용한 적층가공제품의 기공평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 논문은 발표 이후 SCI 학회지에 가장 많이 인용되며 연구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비파괴검사기술은 금속 3D프린팅 제품 내부의 기공결함에 대한 검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초음파 측정데이터에 적용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최 교수는 "최신 인공지능기반의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연구결과가 SCI 학회지에 다수 인용되고 세계적으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비파괴평가 연구실 구성원들과 최신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에 매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원의 비파괴평가연구실(NDE Lab)은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금속 3D프린팅 제품, 항공기 부품, 탄소복합재의 건전성 평가 그리고 인공지능·원격로봇기반 비파괴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임 경찰관 환영식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8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제313기 신임경찰관 경장 김근호, 순경 김연화(여), 순경 백정현, 순경 신의준, 순경 이은수, 순경 전준영, 순경 정시우, 순경 황건하 총 8명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환영식은 김한곤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치러지게 되었고 신임경찰관 경과보고, 환영식 동영상 시청, 신임직원 소개, 경찰서장 격려, 장미꽃 전달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한곤 서장은 "새로 진입한 신임 경찰관이 경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행안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 가져

부안군은 8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감정기 도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관한 행안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민체육기금 10억원, 군비 43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총 57억원을 투입해, 지상1층, 연면적 975㎡ 규모로 실내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및 화장실을 배치하고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방수설비 등을 갖추어 시설 이용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읍면 8개 지역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안을 다목적체육센터, 줄포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에 이어 세 번째 체육센터를 준공하게 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에 개관한 행안다목적체육센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반대비체육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부안·줄

포·행안 다목적체육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추진중인 5개 읍·면지역 다목적체육센터, 실내테니스장, 푸드앤레포츠볼링장, 위도실내게이트볼장, 실내론볼장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8일,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313기 신임 경찰관 환영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환영 인사, 기념 선물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 남원경찰서에 발령받은 신임 순경 김한길, 김효진, 류지민, 정종현, 조현래, 송성민, 김태래, 김동운 등 8명은 8주간의 경찰서, 지구대 실습을 거친 뒤 치안 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철수 경찰서장은 "남원 경찰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주변을 살피는 마음 따뜻한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dvertisement for '전주매일'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list of local branches.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8일 집무실에서 신임 제313기 경찰관 9명(남7, 여2)들의 김제경찰서 실습 배치를 축하하기 위하여 3층 모악홀에서 환영식을 마련했다. 한편 신임 313기 새내기 경찰관들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기초교육을 마치고 전북경찰청 현장대응력 향상 교육을 마치고 앞으로 김제 관내 두 지구대인 신흥·월촌지구대로 현장배치되어 실습을 할 예정이다. 김영록 서장은 "김제경찰서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떤 다짐을 했는지 생각해주시고, 그 다짐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Jeonju Daily Energy Campaign) with a list of energy-saving tips and a background image of a green landscape.